

“안전사고 예방은 지나칠 정도로 철저히”

김관영 전북도지사, 아파트 신축 공사장 찾아… 건축·전기·가스·소방 분야별 전문가와 첨단장비 활용해 점검 실시

최근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와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가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점검 활동에 직접 나섰다.

김 지사는 29일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02년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맞아 전주 에코시티지역 포레나 주상복합 신축공사장을 방문해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 상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29일 전주시 에코시티를 방문해 국가안전대진단 현장점검에 나서 신축 아파트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시 제공)

김 지사는 이날 현장 관계자들에게 “지난 21년 6월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 사고와 '22년 1월 광주 아이파크 신축 공사장 붕괴사고 등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다며 “각종 안전사고 예방은 선제적으로 지나칠 정도로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낙상사고 등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될뿐만 아니라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만큼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 사전 안전관리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점검활동에서 함께 참가한 건축·전기·가스·소방 분야

별 전문가들과 안전난간 비계, 동버리 등 가설구조물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방지 가스용접 등의 작업·용기 보관의 적정성, 임시소방시설 설치 등 전반적인 현장 안전관리에 대해 세밀하게 중점 점검했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는 육안 점검으로 는 한계가 있는 콘크리트 강도, 철근

배근 측정 등을 위해 슈미트 해머, 철근 탐사기, 열화상 탐지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더욱 정밀한 점검이 이뤄졌다.

김 지사는 “안전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처리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기간을 두고 처리할 사항은 승인권자인 전주시에서 준공 전까지 시공사가 조치토록 하라”며 “처리사항을 확인해 신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지시했다.

올해는 과거와 달리 도민 의견수렴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점검대상 선정을 위한 도민 설문조사, 민간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실시했고, 점검시설 주민신청제를 실시했으며, 8월 1일부터 이달 10월 14일까지 59일간 도내 1,500여 개소 시설을 점검한다.

이후, 향후에도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기간 도내 전 시·군 및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해서 현장의 안전 상태를 살펴 시설물 안전을 확보하고, 도민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



스토킹 범죄로 부터 안전한 환경 만들기

전북경찰청, 1336 전북센터를 '스토킹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로 지정

전북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 이하 '위원회')와 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은 스톱킹 피해자 보호 지원을 강화해 도내 협력단체 등과 스톱킹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기로 했다.

최근 서울 역무원 스톱킹 살해 사건 등 스톱킹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스톱킹차별법(21.10.21) 시행 이후 전라북도에서도 스톱킹 범죄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 전북센터의 스톱킹 피해자의 상담도 작년 보다 수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29일, 전북경찰청과 전북도청 여성청소년과는 1336전북센터를 '스토킹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로 지정하고, 한편식 행사를 개최 했다.

이를 통해 스톱킹피해자가 법률 의료, 임시 보호시설 등을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올해 5월 중 도민 정책 제안 공모를 통해 스톱킹피해자 보호 지원을 제안받았고,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통해 사업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내년부터 일선 경찰관서에서 스톱킹 피해자로부터 보호조치가 필요한 도민에게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문열림센서, 비상벨 등 안심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스톱킹 피해자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해 스톱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

전북도, 갯벌 보전본부 유치 '총력전'

고창군 등과 업무 협약… 고창갯벌 지속가능한 보존·관리 위해 협력 다짐

전북도(도지사 김관영)와 고창군이 '세계자연 유산보전본부' 유치를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다.

도는 고창군·상하농원·청년벤처스와 함께 지난 21일, 전북도청에서 고창갯벌의 보존·관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 기반을 다졌다고 밝혔다.

갯벌 보전본부를 전북 내 유치하는데 힘을 보태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민·관이 참여하여 각각 특성에 맞는 협력 분야를 발굴해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상하농원은 수익금 일부를 갯벌 보전 지원금으로 기부하고 갯벌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청년 벤처스는 갯벌 생태계 보전 활동 캠페인 전개와 지역과 상생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전

북도와 고창군은 갯벌 보전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 추진 예정이다.

상하농원은 평소에도 고창갯벌 플로깅 활동을 통해 갯벌 정화 활동에 앞장서 왔으며, 고창산 바지락 라면을 출시하는 등 지역과 상생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후러 청년벤처스는 고창군에 거주하는 청년들로 이루어진 사회단체로서 갯벌 보전 캠페인 활동을 하는 등

갯벌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세계자연유산 갯벌의 보전을 위해 지역의 대표기업과 단체가 협력을 약속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보전을 위해 전북도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한미음으로 갯벌 보전과 생태계 복원활동을 위해 뜻을 모아주셔서 감사하며, 국내 최고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고창갯벌에 세계자연 유산보전본부가 유치 되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고창·김영식 기자

제5회 전북무형문화재 한마당축제 개최

내달 1일까지 · 전주 경기전 광장 일원에서 진행

제5회 전라북도무형문화재 한마당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리고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관객을 맞는다.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은 (사)전라북도무형문화재 연합회(회장 양기석)가 주최하고 전라북도가 후원하는 도내 무형문화재의 최대 행사인 전라북도무형문화재 한마당축제가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 전주 경기전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공연 첫날 29일에는 전북도무형문화재 제22호인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개막 퍼포먼스 △삼봉사 눈뜨는 대목 기획공연 △김영희·박

애숙·최선·김소영·김광숙 무형문화재 보유자 순으로 공연이 진행됐다.

또한 △무형문화재 보존회의 페레이드 등 전통문화유산의 가치를 전달하고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기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이와 함께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들의 전시기획전도 장인의 흥 마대를 담다라는 주제로 10월 1일까지 문화공간 기린(기린미술관) 3층에서 진행 중이다.

직접 행사장을 찾지 어려운 관객들은 전라북도무형문화재연합회 누리집(<http://www.jomgjeon.com>)에서 공연과 전시를 즐길 수 있다. /김경수 기자

D-225, '하나된 스포츠, 즐거운 어울림'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협업으로 '준비착착'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김관영 도지사)는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추진 상황 점검을 통해 전북도 및 유관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협업과제에 대한 민간의 대비를 갖추고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한 보고회를 가졌다.

조직위는 지난 29일 오후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조봉업 행정부지사 주

재로 협업과제 부서장과 유관기관이 참석한 협업과제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영평 관리 대책 △자원봉사자 운영 △교통·수송대책 △대회 운영을 위한 근무인력지원 등과 함께 과제별 내년도 예산보영 계획에 대해 중점 논의 했다.

먼저 코로나19 등 김관영 관리를 위

해 주요시설 방역 및 소독, 환자 발생 대비 격리 치료병원 지정·운영, 방역 대책상황실 운영 등으로 대회 기간 방역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일반 및 특역분야에 2천여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선발하고 소양·직무·리더 교육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참가자 및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교통대책으로는 개·폐회식 및 주요 경기장 주변 교통관리로 방문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이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통·수송 통제

소 운영 및 셔틀버스 운영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 협업과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협업부서,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도와 유관기관에서 함께 추진 해온 협업과제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라면서,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가 새로운 전북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

도자치경찰위 전 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응급상황에서의 원활한 대처를 위해 전북도 자치경찰위 소속 전 직원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했다.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다양한 치안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현장성 강화를 위해 이형규 위원장

장을 비롯한 전 직원 30명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북 119안전체험관(임실 소재)에서 이루어진 이번 교육은 이론부터 동영상 시청, 실습까지 진행됐다. /김경수기자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박양례(1929. 5. 6.생 2022. 7. 21, 사망)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감재철 사법보좌관의 심판으로 법원에 수리되어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 또는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일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2022-단163 상속한정승인
사법보좌관 감재철

▶피상속인 망 박양례(1929. 5. 6.생 2022. 7. 21, 사망)
최후주소: 정읍시 교부면 교동3길 6-11 (교부리)

▶공고안 은문배

▶공고기간: 2022. 9. 30. ~ 2022. 11. 29.

▶주소(청구인) 은문배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409, 106동 102호 (농소동, 농소주공아파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